Market Index / 1일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유가(WTI, 달러)			환율(원)		살때	팔때		살때	팔때
	▲	2065.08 +35.48		▲	735.72 +22.04		▲	35.49 +1.78		1USD	1250.50	1207.50	1EUR	1394.66	1340.24
										100￥	1163.96	1123.94	1CNY	180.47	163.29

제주용암수 국내외 시장서 '악전고투'

올해 국내 시제품 판매 3월 1일 10t 미만
(주)오리온 지난해 베트남 수출 71t 기록

제주의 염지하수로 만든 '제주용암수'가 국내외 시장에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주)오리온은 지난달 25일부터 제주시 구좌읍 제주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내에 있는 공장에서 '제주용암수'를 본격 생산하고 있다. 1일 생산량은 200t(연간 7만3000t)으로 330㎖, 530㎖, 2ℓ제품을 출시하고 국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5만 4000개소, 일반슈퍼 1만4000개소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제주용암수는 제주도의 현무암층에 의해 자연여과돼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에 갇힌 바닷물인 염지하수를 이용하는 기능성 음료로 마그네슘과 칼슘, 칼륨, 바나듐, 셀레늄, 게르마늄 등 미네랄 성분이 함유돼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주용암수 판매량은 1일 10t 미만에 그쳤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장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 기능성 음료 시장에 비교 우위를 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기능성 음료시장 규모는 약 2조 2000억원으로 국내 한 유명 기능성 음료가 10%이상 시장을 점유한 상태이다.

또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으나 수출실적도 부진하다. 지난해 호치민과 하노이 등 베트남 주요도시 수출량은 71t이다.

앞서 오리온은 지난해 10월 중국 최대 커피 체인인 '루이싱 커피'와 프리미엄 미네랄워터 '오리온 제주용암수'와 과자류인 '고소미' 등 자사제품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오리온은 수출계약을 통해 제주용암수를 출시한 뒤 올해 상반기 루이싱 커피에 530㎖ 제품을 공급키로 하고 루이싱 커피는 제품 출시에 맞춰 전국 체인점에서 제주용암수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키로 했으나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19 타격' 롯데·신라 제주 휴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 여파로 1일 롯데면세점 제주점과 신라면세점 제주점이 문을 닫았다. 사진은 롯데면세점 제주점 앞에 세워진 휴업 안내판. 연합뉴스

지난해 8월 LG그룹 계열의 종합물류 기업인 판토스와 한국·중국 등 글로벌 물류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오리온은 올해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제주용암수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리온 관계자는 "중국 업체와 체결한 수출계약은 별다른 진전이 없지만, 업체와 6월 중 런칭할 예정"이라며 "제주용암수 생산량과 판매량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제주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 회복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월 경기동향조사 결과
체감경기지수 소상공인 87%·전통시장 107.4%

최근 지급된 정부와 제주도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기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2020년 5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체감경기 지수는 88.3, 전통시장 체감경기 지수는 109.2로 전월 대비 각각 14.5p, 29.2p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체감경기 지수는 제주가 전월 대비 24.7p 오른 87.0을 기록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전남(23.2p 상승), 서울(17.1p 상승)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통시장 체감경기 지수의 경우 대전(125.6, 전월 대비 44.9p 상승)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128.1, 44.7p 상승), 경북(114.5, 37.5p 상승)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는 전월 대비 24.4p 상승한 107.4를 기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가 증가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 경기 호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석기자

제주항공 김이배 신임대표(앞줄 왼쪽에서 3번째)는 1일 오전 제주항공 스마트오피스에서 제주항공 임직원들과 함께 비타민 음료를 나누며 취임 인사를 했다.

전국 매매·전세가격 상승인데 제주는 하락

한국감정원,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 보고서 발표
전국 주택 매매가격 0.14%↑… 제주는 0.28% 감소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상승했으나 제주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5월 주택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으나 제주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0.28% 감소했다.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와 보유세 부담 영향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서울(-0.09%)은 강남권 고가주택 위주로 급매물이 출현하며 하락폭이 확대됐고, 경기(0.40%)·인천(0.59%)은 그 간 상승폭 낮았던 지역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중랑(0.04%)·강북구(0.02%) 등은 중저가 단지 수요로 상승했으나 강북 주요지역인 마포(-0.08%)·용산(-0.03%)·성동구(-0.01%)는 고가의 대표단지 위주로 급매 출현하며 하락 전환되는 등 강북 대부분 지역이 보합 내지 하락으로 전환됐다.

대전(0.43%)은 혁신도시 개발 기대감 등으로, 충북(0.16%)은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 등으로 상승했으나, 제주(-0.28%)는 관광객 감소로, 경남(-0.07%)은 제조업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하락했다.

또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9% 상승했으나 제주(-0.20%)는 부동산경기 침체,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0.18%→0.15%) 및 서울(0.07%→0.05%)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세종(0.45%)은 고운·한솔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대전(0.27%)은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울산(0.18%)은 혁신도시 인근 단지의 수요 증가로 상승했으나 제주(-0.20%)는 부동산경기 침체,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특히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01% 상승했으나 제주(-0.16%)·경남(-0.04%)은 제조업 경기 침체와 신규 입주물량이 누적되며 하락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흑돼지 온라인서 직거래
제이디팜스 '제직증명' 론칭

앞으로는 소비자가 제주흑돼지를 온라인을 통해 경매가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주)제이디팜스는 '축산물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을 통해 제주흑돼지를 생산자 직거래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직증명'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론칭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에서 직배송함을 증명한다'는 의미의 제직증명은 생산자 직접 판매 방식인 유통구조를 탈피하고 소비자 직접 경매방식을 채택해 최적의 품질과 가격을 동시에 실현하는 브랜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직증명'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제이디팜스 고도호 대표는 "앞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게 상품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항공 정신으로 위기 넘어 도전할 것"

제주항공 김이배 신임대표 1일 취임

제주항공 신임 김이배 대표이사가 1일 취임했다.

김 신임대표는 업무 첫날인 이날 오전 김포공항 내 정비본부를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김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하면서 과거와는 다를 포스트-코로나 시장을 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난 15년간 제주항공의 성공은 제주항공의 체화된 도전의 DNA가 이룩해낸 결과"라며 "현재의 위기 또한 제주항공 정신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대표는 제주항공의 고유 코드명인 '7C'의 실천적 모토로서 "자신감(Confident), 실력과 역량(Competent),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Connected), 존중·배려(Cooperative), 일관성 있는 추진력(Consistent), 창의성(Creative), 고객 요구 선제적 대응(Customer-oriented) 등으로 무장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도 제주항공이 항공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전을 계속하자"며 "도전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고침=1일자 6면에 게재된 로또복권 <제913회> 당첨번호 중 '4'는 '14'의 오기이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칼슘비료+코코리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코코리 입상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페르카® 효과
잡초의 경감
N20 60일 공급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높은 저장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au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감귤·만감류 영농안내
▣ 당을 올리려면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양낭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관주 (3300㎡ 당 2번 관주시 4만원 소유)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지사
곰탱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